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에 관한 연구

박 미석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전지원*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박사과정)

이유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박사과정)

가정복지는 가족의 구조·기능적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 및 전체가 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복지는 '가족을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가족에 의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사회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예방적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가정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가정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수혜와 요구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기혼여성을 소개 받아 면접조사하였다. 최종 407부를 분석자료로 채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 직업의 불안정, 본인 및 가족원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정도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 직업훈련교육, 정보화교육, 기술·기능교육,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등 주택·고용·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거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수혜경험이 있으나, 가족유형별 복지욕구에 따른 세부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즉, '가족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대상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가족단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가정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훈련교육, 정보화교육, 기술·기능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비 및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지원이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혜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무료양로원·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보급,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자녀양육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9년부터 시행된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정은 자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가정복지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의 설립확대,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 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화, 취업교육 및 상담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부양 및 자녀양육 등의 보살핌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